# 목포대양산단, 효자 산단 탈바꿈

시, 금융채무 2720억 전액 상환…분양률 98% 기업 입주 잇따라 지역경제 선도

목포대양산단이 빚더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효자 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총 2827억원의 조성사업비가 투입된 목포대양산단의 금융채무 2720억원 중 잔 액 250억원이 지난 4일 전액 상환됐다.

채무가 상환되면서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목포대양산단(주)은 앞으로 사업결산, 해산결의, 청산공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8~9월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그동안 출자기관인 대양산단(주) 금융 채무 이자 부담(금리 3.4%)을 덜기 위해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컨설팅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채 800억원(금리 1.9%)을 발행했다.

이후 2021년 200억원, 올해 3월 100억원 등 지방채 300억원을 조기 상환했고, 오는 5월 상환 만기되는 300억원은 올해 추경에 이미 확보해 상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200억원은 매각 대금 등으로 상환할 예정 이어서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된 부채는 올해 안으 로 모두 해소된다.

대양산단은 목포시 재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현재는 분양률 100%에 임박하면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산단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시는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분양의 가속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모든 공직자가 1부서1기업 유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또 시 금고 은행과 협력해 전국의 지



목포대양산단이 애물단지로 전략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효자산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목포대양산단 전경. 〈목포시 제공〉

점을 통해 대양산단을 홍보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 역 지정을 2년 연장해 입주기업들이 2023년까지 제한경쟁입찰 및 지자체 수의계약, 융자지원 및 보 증 우대 지원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국가에너에지산업융 복합단지로 지정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 메 리트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대양산단은 현재 9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산업용지가 3필지 에 불과해 올해 안으로 완전 분양될 전망이다. 또 146개 기업 입주, 8000억원의 투자계약, 1200여명의 신규일자리 등을 통해 목포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앞으로 대양산단은 김 가공업체 집중 입주, 수산 식품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중심 지로 도약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 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한때 걱정을 샀던 대양산단이 지금은 분양이 거의 다 이뤄지면서 지역경제를 지 탱하는 효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면서 "대양산 단의 완전 매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해남군, 스포츠 마케팅 재개 '날갯짓'

올해 65개 대회 개최···숙박업소·식당 등 6월까지 예약 완료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마케팅 재개 를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해남군은 지난 3월 17일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농 구대회를 종료한데 이어 이번 달부터 전국단위 대 회를 포함해 올해 65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남에서는 제24회 전국실업펜싱연맹 회장배 선수권대회, 제12회 전라남도도지사배 전국보치아 선수권대회, 제58회 한국중고등학교소프트테니스 연맹 회장기대회 및 2022년 한국 주니어대표 꿈나무 선수 선발전 등 전국 대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또 4월 한달간 3개 전국대회를 비롯해 제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남 2차 선발전 및 2022년도 전라남도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제 54회 협회장기한마음 배구대회 등 도·군단위 대회도 열린다.

해남군은 올해 18개의 전국 단위 대회를 비롯해 17개의 도 단위 대회, 12개의 지역(군 단위) 대회 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 각 체육단체의 행사까지 더하면 2022년 총 65개의 크고 작은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2년여에 걸 친 코로나19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스포츠마케 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난 2월 마감한 동계 전지훈련에서 연인원 3 만 여명을 유치하며, 코로나로 부터 안전한 동계전지훈련이 라는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성공사례로 만들어냈다.

특히 지난해까지 무관중대회로 진행되던 전국단 위 스포츠대회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제한적인 관중수요가 가능해 짐으로써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스포츠대회 개최로 인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회 일정에 따라 지역 숙박업소와 식당은 벌써 6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본격적인 스포



해남군이 봄과 함께 스포츠마케팅 재개에 힘을 쏟고 있다. 펜싱연맹 선수들의 동계전지훈련 모습. 〈해남군 제공〉

츠마케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 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철저한 방역 아래 안전한 대 회 개최의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다"며 "올해도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속도

진실화해위와 협약…'희생자 증언채록 발간사업' 추진

신안군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와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협약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신안군은 원활한 공동수행을 위해 현지조사 및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해에는 '신안군 희생자 증언채록 발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언 채록 지자체 공동수 행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1차 사료가 되는 증언을 생산·수집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 실을 밝히고자 2020 년 재출범했다.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민간인희생,적

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신안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이 신 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임자도 직권조 사 1300건 추진해 의미 있는 사례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마을공 동체 회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 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픔을 극복하고 우 리 군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 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 20만원씩 지급

8일~5월 6일 온라인 신청 등…2020년 1차 이후 총 55만원

영암군이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영암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생활비 110억원을 반영, 8일부터 5월 6일까지 1인당 20 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 년 1차 재난생활비 1인당 1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 2~3차로 10만원, 15만원을 각각 지급 했으며, 올 초 4차 재난생활비로 20만원 등 1인 당 총 55만원을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4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

민자(F6)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되다

신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별 신청일을 운영(읍 지역)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면 지 역), 온라인 신청 등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영암군 누리집(http://www.yeongam.go.kr)에서 영암사랑카드 발급자 또는 소지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발급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거나 앱 스토어 '착(cha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된 카드는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 불갑저수지 '물멍쉼터' 조성

영광 불갑저수지 수변에 물과 함께 산책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친수 산책로와 전망대(물멍쉼 터)가 들어섰다. 〈사진〉

영광군은 30억원을 투입해 불갑 테마공원(금 계마을)부터 전촌마을 방향으로 1.2km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간중간 그늘쉼터와 도로 비탈면에 가을꽃인 코스모스를 식재했다.

전촌마을 앞에는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객들에 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산책로와 도로 사이에 벚꽃 등을 심어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물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전촌마을에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보도교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도교 조성이 완료되면 불갑 테마공원을 시작으로 전촌마을, 불갑수변공원, 방마리 회전교차로를 거쳐 불갑 테마공원으로 가는 산책로 둘레길 4km가 완성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